

마음이 통하는
VOL.12

길



마음이 통하는
VOL.12

길



KTTU 클로즈업
KT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기념식

현장 24시
대구고객본부 사내채널운영부 S&R팀 권화숙 조합원
KTTU 칼럼
선택! 한국노총 제25대 선거인대회
길따라 멋따라
아련한 추억으로 충만한 복고 열풍, 90년대를 추억하라

새로운 도약! 끝없는 전진!

공자는 위정편(爲政篇)에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썼습니다.
서른에 뜻이 확고하게 섰다는 뜻입니다.

KT노동조합이 지나온 32년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실현이라는 확고한 뜻을 세우기 위해
힘써 온 시간이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로
한발 한발 올곧게 정진하며
국내 최대 통신노조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인 물은 곧 썩게 마련입니다.
타성에 젖어 몰락의 길을 가느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KT노동조합의 미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합니다.
제2의 창립정신으로 지난 2년의 허와 실을 메우고
노동조합을 더욱 단단히 조직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생과 화합이
KT노동조합을 더욱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과 전진의 32주년!
변화와 소통의 11대 집행부가 열어가겠습니다.



Contents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원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4년 2월 14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 그룹희망나눔재단 02-3414-2053 인쇄 | 애드그린(주) 02-498-6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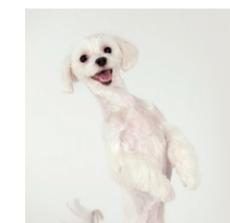
04 KTTU NEWS
08 KTTU 클로즈업 01
KT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기념식



12 KTTU 클로즈업 02
2014년도 정기 지부대회 개최



01 2014
vol. 12
02



14 피플
(사)한국장애일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재익 고용노동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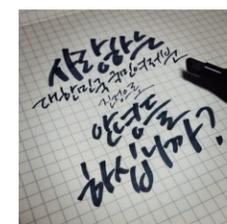
16 해피투게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



18 현장 24시
대구고객본부 사내채널운영부 S&R팀 권화숙 조합원

22 KTTU 칼럼 01
kt '황창규 호' 공식 출범

24 KTTU 칼럼 02
선택! 한국노총 제25대 선거인대회



26 이슈 & 사회
세상을 울린 일곱 글자의 물음표! 안녕들하십니까?



표지
2014년 1월 6일(월) KT노동조합은 창립 3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 힘찬 전진! 선진 노동조합 건설!"을 선포했다.



28 길따라 멋따라
아련한 추억으로 충만한 복고 열풍

32 건강 & 과학
미세먼지, 누구나 넌?

KTTU news



현장 IT폰 교체주기 3년→2년으로 단축

KT노동조합은 현장 건의사항 중 현장 IT폰 교체주기 단축 등 IT폰 개선에 대하여 회사 측에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현장 IT폰 교체주기 2년으로 단축(2014년 공급분부터 적용)

▲2011년 공급된 갤럭시S2 → 2014년 하반기 중 교체

▲2012년 지급한 갤럭시노트1, 갤럭시S3 단말기 배터리 지원 단, 개선된 IT폰 교체주기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단말기종이 아닌, 2014년 공급분부터 차례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 2013년 IT폰 현황

- 공급주기: 3년 초과 시
- IT폰 보유 현황

기종	공급년도	공급수량	대개체 예상년도
갤럭시 S2	2011년 9월	327	하반기 중 (995대)
	2011년 10월	297	
	2011년 11월	371	
갤럭시 노트1	2012년 4월	32	2015년
		1,813	
갤럭시 S3	2012년 8월	319	2015년
갤럭시 S4	2013년 9월	650	2016년
계		3,809	

■ 주요 개선내용

- IT폰 공급주기 개선
 - 주요내용: 공급주기 단축
 - 현 3년 → 2년(※2014년 공급분부터 적용)
- IT폰 대개체
 - 2011년 공급된 갤럭시 S2: 2014년 하반기 중(995대)
- IT폰 배터리 지원
 - 갤럭시노트1: 1,845대 X 2개 = 3,690개(2014년 1월중)
 - 갤럭시 S3: 319대 X 2개 = 638개(2014년 5월중)

개통/AS분야 TOP-CARE 활동 자발적 참여



KT노동조합은 현장 건의사항 중 개통/AS 직원 TOP-CARE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위해 TOP-CARE를 개선하여 운영한다.

■ TOP-CARE 개선내용

- 고객 Care 관련 현장 공지 (2013.12.18)
 - 개통/AS 직원 Zone 매핑 제외 및 TOP Care 활동 목표 강제 부여 지양
 - 지인, 본인판매 고객은 주요 고객으로 등록(자발적 수행)
 - 개통/AS 시 해지징후 이관과 같은 유관업무 활동 외

TOP Care 활동 강요금지

- 개통/AS 직원 고객Care 자발적 참여
 - 개통/AS 시 해지징후(혜택/품질불만 토로) 포착 시 전담직원(C&R팀)에게 정보 이관
 - ⇒ 2014년 상반기 중 업무용 Phone에 정보 이관하는 시스템 구현 예정
 - 개통/AS 이후 MOT 고객 등 추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고객은 고객 Needs, 반응 등을 시스템에 입력가능

요금 청구서에 지역 영업담당 연락처 삭제



KT노동조합은 현장 건의사항 중 매월 발행하는 요금 청구서에 TOP-CARE 활동의 목적으로 활용했던 지역별 영업담당 연락처를 표기하던 것을 개선한다.

- 배경
 - 청구서에 표기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가 와도 적시에 영업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음
 - 고객 문의나 요구에 신속한 응대가 되지 않아 VOC 증가 및 신뢰도 저하
- 개선내용
 - 요금 청구서에 표기하던 지역별 영업담당자 연락처 삭제
 - 2014년 1월부터 발생하는 2월분 청구서 발행부터 적용

노동조합 규정개정 전담반 가동



지방조직운영규정 및 현실화 논의

KT노동조합은 현장의 건의사항 중 각종 규정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제로 효력을 잃어버린 사문화된 규정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개정 전담반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2월 17일~ 23일까지 현장 조직에서부터 의견을 모은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26일부터 도고수련관에서 전반적인 규정 검토 작업을 벌였다. 현재 전담반에서는 지방조직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처무규정, 회계규정, 여비규정, 회계감사규정, 상벌규정,

신분보장규정, 회의규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번 전담반에서 검토된 안들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KT노동조합, 철도민영화 반대·노동탄압 규탄



KT노동조합은 한국노동총연맹 IT사무서비스연맹 조합간부들과 함께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대의 힘을 보탤다.

이날 집회에서 양대 노총은 철도 민영화 포기를 촉구하며 철도노동조합을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양대 노총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인원인 1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데 있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임금 관련 토론회 참석



'지급일 현재 재직 여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쟁점 KT노동조합은 1월 10일(금)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통

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법학회 주최로 ▲통상 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평가 ▲임금제도 개선의 입법정책적 과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재 160여 건의 통상임금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대부분의 노사가 2014년 단체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관련 토론회인 만큼,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재직요건, 신의칙' 변수로 떠올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또 노사 합의된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

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논란이 접화된 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복리후생비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고 있고, 나아가 만약 정기상여금마저 '지급일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주는 금품'으로 명시할 경우,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이 사라져 상여금마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빌미로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줄 여지를 남긴 것도 관련 소송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발제를 맡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직요건을 이유로 한 복리후생비 제외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칙을 적용하리란 예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을 정도였다"며, 기업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닌 가 의구심을 나타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K의 경우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한 '기준연봉월정액(기준급+역량급+역할급+직책급)/12'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KT노동조합은 현재 성과급(지급일 현재 재직자 한) 포함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판례와 노동부 지침 등을 기다리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홍보용 시연차량 7월 캠핑카형으로 대개체



KT노동조합은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사 홍보용 시연차량을 대개체할 것을 회사에 요구, 오는 7월부터 시연차량을 실내영업이 가능한 고

급 캠핑카형으로 대개체하기로 협의했다. 기존 홍보용 시연차량은 ▲경쟁사 대비 대면영업 경쟁력 약화 ▲실내영업 불가로 동·하절기 효율성 저하 ▲차량 노후화로 인한 디자인 및 홍보기능 미약 ▲유무선 동시판매 및 홍보기능 저하 ▲운행률 저조에 따른 차량관리 한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7월부터 전국 주요거점 지사에 캠핑카형 시연차량 78대 배치

이에 오는 7월부터 전사적으로 78대의 캠핑카형 시연차량을 전국 주요거점 지사에 배치하며, 차량 소유권은 지역본부에 두고, 인근 지사는 지역본부로 운행신청 후 사용(지역본부에서 지사별 배정)하면 된다.

노동조합은 이번 홍보용 시연차량 대개체로 ▲사계절 실내영업이 가능해 대면영업 경쟁력 강화 ▲유무선 동시판매 및 홍보기능으로 영업시너지 향상 ▲고급형 차량 운행으로 경쟁사 대비 회사이미지 상승 ▲체계적 차량관리 및 차량운행 효율성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무효소송, 고등법원 2심도 승소



당연한 결과... 민동회 위시한 조직혼란 세력에 강경대응 방침

1월 15일(수) 선거무효소송 본안소송이 고등법원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는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를 상대로 민주동지회가 제기한 소송으로, 민동회는 지난 2003년부터 조합선거 패배 후마다 선거효력가처분신청, 선거무효소송 등을 줄기차게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해야만 끝나는 매뉴얼을 반복해 왔다. 선거효력가처분신청 1·2심, 선거무효소송 본안소송 1심까지 같은 주장으로 일관하여 판사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결정문을 받고도 불복, 항고해 이번 고등법원 2심서도 패소한 것이다.

민동회 선거효력정지가처분, 모두 기각

2013년 3월 6일 민동회에 의해 제기됐던 선거효력정지가처분소송이 고등법원 항고심에서 재차 기각됐다. 민동회는 2011년말 11대 위원장 선거 직후 시작한 가처분소송부터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2년여 동안 의미없는 법적 분쟁을 계속 일으켜, 법원에서조차 가처분의 무의미함을 지적했었다. 이어진 선거무효소송 본안소송 결정문에서도 법원은 조목조목 민동회 주장에 '이유 없음'을 판결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소송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결국, 목적은 따로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슈화와 집행부 장악에만 골몰? 중앙위원회 열어 징계 여부 결정

정윤모 위원장은 1월 6일 32주년 창립기념사를 통해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할 것을 대내외에 선언한 바 있다. 대안 없는 비방과 호도, 그리고 오로지 이슈화와 집행부 장악에만 골몰한 행태는, 결국 조직을 갉아먹고 자멸시킬 뿐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1월 20일(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년도 제1차 중앙위원회의 개최



지방조직운영 등 규정 5개 조항 현실화 KT노동조합은 1월 20일(월) 오전 11시부터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중앙위원 24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목적사항인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먼저, '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은 지난해 12월 각 지방본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지방조직 운영 ▲상벌 ▲여비 ▲회계 ▲처무 규정의 문구와 명칭 등 총 5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특히 지방조직 운영의 경우에는 수습대표의 정의 및 내용을 보완했으며, 상벌규정의 경우 징계시효를 보다 현실화했다. 이외 조항은 명칭과 문구 등을 현행법에 맞게 조정하고, 현실화했다.

한편, 규약 제73조에 의거한 '조합원 징계에 관한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징계결과는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 개정된 사항은 자료실「문서/정책」에서 변경 내용을 참조

현장간담회 결과 집중 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로 현장 소통 적극 확대하자

KT노동조합은 1월 24일(금) 오전 10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중앙상무집행위원회 미팅을 통해 2차 현장간담회 결과를 공유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상집은 지난 1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11개 지방본부 소속 111개 지부를 순회하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전국 지부를 돌며 실시한 1차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279건을 인사·보수·복지·영업·네트/기술·회사/경영·홍보강화/조합활동 등으로 세분화해 개선 사안과 앞으로 해결할 사안들을 정리해 피드백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번 2차 간담회를 통해 추가 건의사항을 모아 해결책 모색에 나선 상태다. 중앙상집은 "건의사항 대부분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들이어서, 회사에 적극적인 요구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11대 집행부 소통의 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14년도 연간 프로모션 계획 공지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4년도 연간 현장 프로모션 계획을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프로모션/영업일수: 105일/248일(총 4회)

■ 기간(예정)

• New Start : 2. 3 ~ 3. 24(36일)

• 가정의 달 : 4. 14 ~ 5. 23(27일)

• Jump Up : 8. 18 ~ 9. 5(15일)

• 총력 : 10. 1 ~ 11. 10(27일)

※ 상기 프로모션 일수를 준수하고, 마케팅 환경에 따라 일부 기간은 노사 사전협의 하에 조정 가능

KT 복지혜택과 각종 제도안내

KT노동조합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KT복지제도 현황(2014년 1월 기준)을 현황화하여 등록했다. 이는 KT복지제도를 현시점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그동안 복지제도 변경 시마다 해당 내용을 갱신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왔다.

등록된 자료에는 KT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각종 제도로 ▲의료비·학자금·축의금 등 복지제도 지원 기준 ▲복지포인트 이용 세부내용 ▲수련관 등 비급여성 복리비 지원 기준과 함께 ▲청원휴가 대상일수 ▲연차휴가 산정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통신비 지원 ▲영업직 시내출장비 ▲리프리티 휴직제도 ▲창업지원 휴직제도 ▲수련관 이용 ▲스마트워킹/선택근무시간제 ▲상조/웨딩서비스 등 수 십여 가지 현행 복제제도가 40여 페이지를 통해 총 망라돼 있다.

원활한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11대 집행부 성과

노동조합은 창립 이래 32년 동안 최선의 사내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공들여 왔다. 특히, 2013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대 집행부는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합의된 세전당기순이익 5%를 넘어선 7.2%를 출연하도록 한 바 있다. 또 결혼과 출산축의금을 현실화하고 산업재해자의 보상기준 및 업무용 차량사고 때 면책금 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수록된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제도 ▲직장내 보육시설 현황(8개) ▲유니폼지급 기준 ▲전직지원 휴직제도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문서/정책」을 참고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피드백, 11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



KT노동조합은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11개 지방본부 111개 지부에서 나온 150여건의 조합원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1차 현장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2차 간담회 직후 TFT를 구성해,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건의사항 해결에 나섰으며, 이를 현장에서 지부장을 통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총 155건 답변은 인사사고과평가에 관한 것부터 GB, 조직개편, 복지축소에 관한 우려 등 현장 조합원의 고충을 해소키 위해 27쪽 문답식을 통해 진술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다가섰다. 특히 상당부분 소요 비용이 따르는 건의사항이 대부분이어서, 노동조합은 즉시 협의 가능한 것과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 추후 노력이 필요한 부분 등을 가감없이 담았다.

앞으로도 노동조합 11대 집행부는 현장 간담회를 지속하여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해당 건의사항 답변자료는 자료실(문서/정책-2차 피드백)[문서/정책-1차 피드백]을 참고

정윤모 위원장, 폭설피해 강원 방문 '지부장 간담회에서 신속한 복구 독려'



무엇보다 현장 조합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당부

정윤모 위원장은 2월 10일(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강원지방본부를 직접 찾아 지부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이번 동해안 지역 폭설은 지난 6일(목)부터 현재까지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전역에 1m 이상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산간마을이 고립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릉과 동해 등 11개 시·군과 경북 6개 시·군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1일 아침 현재까지 강릉에 115.5cm, 진부령 119cm, 미시령 115cm, 대관령 71.3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강원 지역은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등 14개 마을 390여 가구가 사실상 고립된 상태이며, 시내버스 36개 노선이 끊기거나 단축 운행되고, 영동 지역 83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오후부터 그치겠지만, 13일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강원지방본부 소속 지부장 간담회에서 정윤모 위원장은 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은 뒤, "무엇보다 현장 조합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중앙본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KT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기념식

‘2014년, 현장의 믿음과 지지로 올곧게 나아갈 것’
힘찬 도약과 전진 선포!

KT노동조합이 올해로 32주년, 청년의 나이가 됐다.

2014년 1월 6일(월)로 노동조합이 창립 32주년을 맞은 것. 1982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국내최대 통신노동조합으로서 빠르게 성장한 KT노동조합은 그 동안 노동계의 중심에서 민주노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노동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일익을 담당해 왔다. 이에 KT노동조합은 6일 오후 2시부터 분당사옥 대강당에서 ‘KT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2014 힘찬 도약과 전진’의 가치를 내걸고 다시 우뚝 섰다.

이 날 기념식에는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 및 회사 관계자는 물론, 한국노총의 임원과 경쟁사 노조위원장, UCC 회원사 노사대표, 언론사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KT노동조합의 창립 32주년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추미애 의원, 한정에 의원과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권은희 의원, 이완영 의원 등이 자리를 빛내 KT노동조합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행사는 먼저 타악 그룹 ‘좋은 친구들’과 ‘난타’ 퍼포먼스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확 뚫리는 파워풀한 공연으로 힘차게 서막을 올린 후, 뒤 이어 뜨거운 함성 속에 본격적인 창립행사의 막이 올랐다.

정윤모 위원장, 제2의 창립정신으로 조직정비하고 현장의 복지실현 이룩겠다 약속

정윤모 위원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우리 선배들은 노동악법에 맞서 투쟁하고,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통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 온 격동의 시간을 보내며 민주노조 건설을 선도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연 뒤, “우리는 줄곧 우리의 밥그릇만을 위해 무리한 투쟁과 갈등을 벌인 적이 없으며, 언제나 조합원의 복지실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대의 명분으로 우리의 자존과 명예를 지켜왔다”고 밝혔다. 이어 “선배님들의 값진 노력으로 KT노동조합이 국내 최대 통신노조로 성장한 만큼, 32주년 창립일인 오늘, 감개무량함을 느끼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피력한 뒤 “KT노동조합이 오늘, 32살 청년의 나이를 맞았지만 2만 4천 조합원은



결코 희망만을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으므로, 조합원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20~30년 후에도 KT노동조합 이름을 빛낼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과 전진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위원장은 또한 “지난 2년간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드러난 허와 실을 폐기 KT노동조합의 조직을 단단히 검열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리더십과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결로 조합원은 물론 노동자의 구심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새로 취임한 CEO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정위원장은 신임 CEO를 향해 “현장은 통신시장의 경쟁력 하락과 이익감소 등 경영리스크로 사기가 저하됐으며,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있다”고 설명한 뒤, “새 CEO께서 노사대화합은 물론 따뜻한 경영, 사람을 중심에 둔 경영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다”고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추미애 의원 등, ‘국민과 사회 위해 함께 뛰자’ 다짐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축하사

뒤를 이었다. 먼저 노동부 출신으로서 노사관계 전문가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KT노동조합이 새로 취임할 신임 경영진과 합심해 글로벌 ICT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며 “통신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우리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공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위원장과 조합원이 합심해서 변화를 주도하며 국민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새로운 상생의 노동운동 롤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을 위한 잔다르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도 “KT노동조합이 그 동안 통신역사는 물론 노동운동에서도 활발한 활동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와 진보하는 노동운동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할 것으로 믿는다”고 축사를 건넸다. 더불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노동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kt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ICT산업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으로 노동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민주당의 한정에 의원도 축하와 함께 “영광과 승리의 32주년 역사를 잊지 말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소득은 그만큼 떨어졌는데 물가는 올라서 너무 힘들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도 또 노동자를 지도하고 선도한다는 것도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안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KT노동조합은 물론 한



국노총이나 다른 노조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좀 더 희망적이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조합원 대표,

‘행복하고 안정된 조직 위해 노력해 달라’주문

기념사와 축사가 끝난 후에는 조합원 대표가 낭독하는 비전 선포식이 뒤를 이었다. ‘노동형제 총연대로 평등복지 건설하자!’는 구호가 제창된 뒤 단상에 오른 전남지방본부 양형화 조합원은 먼저 KT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자축한다며 입을 열었다. 양 조합원은 “KT노동조합이 32년 역사 속에서 투쟁하고 성장하는 사이, 회사는 조합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발전했고,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들의 희망을 안고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양 조합원은 “경쟁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요즘, 현장은 크고 작은 문제에 사기 저하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운모 위원장님을 필두로 12개 지방본부가 뚝뚝 뭉쳐, 정체되지 않고 진화하는 노동조합, 그리하여 조합원이 진정 kt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행복하고 안정된 조직을 위해 다시 뛰어달라”는 조합원의 염원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양형화 조합원의 주문이 끝남과 동시에 정운모 위원장과 12개 지방본부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염원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 다시 한 번 힘차게 재도약하기 위한 의식행사를 마지막으로 이 날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또 다시 앞으로’, 합창하며 피날레 장식

기념식은 비교적 장 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은 자부심과 포부로 밝았다. 행사를 지켜 본 강북지방본부의 한 조합원은 “요즘 안팎의 압박적인 환경과 여건 때문에 다소 힘든 것은 사실이나,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소신으로 가득 찬 노동조합이 있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며 “집행부가 보다 왕성하고 강력한 현장활동을 펼쳐간다고 약속했으니, 지금보다는 더 희망적이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 역시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경제위기, 국민들의 불신 속에서도 그칠 줄 모르는 정치권의 당쟁,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파괴되어 가는 서민공공체를 목도하면서, 한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대기업 노조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금 느낀다는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노동계 인사는 이어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연대,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끝없는 대화와 타협, 고통분담 이전에 기득권을 포기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한국사회의 재도약과 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KT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기관차로써 노동자 사회의 통합과 전진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꽃피워 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날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민중가요 ‘또 다시 앞으로’를 장엄하게 합창하며 ‘KT노동조합 32주년 창립기념식’ 행사의 막을 내렸다.

KT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해 한국노총 가입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패러다임과 새로운 노동운동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선언한 바 있다. KT노동조합은 그 동안 조합원들로부터 받았던 새로운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씩 실천에 옮겨나가고 있는 중이다. 반목 위주의 운동을 지양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은 물론 통신미디어 규제에 맞선 대정부 교섭력 확충을 위해서도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과거의 구태와 관성을 넘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및 복지확대를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 그 동안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모토 아래 독자적인 운동을 펼쳐 온 KT노동조합, 완전복지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합원의 염원과 희망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열어 갈 도약과 전진의 장을 기대해 본다.



2014년도 정기 지부대회 개최

현장조직 복원과 지부 구성 및 체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KT노동조합은 2월 4일(화) 전국적으로 2014년도 지부대회를 열고, 각 지부의 지난해 활동사항과 올해 활동계획을 해당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고했다.

정윤모 위원장, '현장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 강조

정윤모 위원장은 지부대회를 축하하며 “앞으로 우리는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욱더 현장중심의 노동운동을 펼쳐가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늘 지부대회를 계기로 현장조직을 복원하고 지부구성 및 체계를 정상화해야 하며, 조합원의 손발이 되어줄 믿음직한 조합원을 대의원으로 선출해 조합의 주춧돌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중앙상무집행위원은 11대 집행부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더 큰 도약과 전진을 향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각 지방본부 위원장 및 간부들도 지부대회 대회사를 통해 ‘올해가 11대 집행부 마지막 해이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해라면 그 동안 벌여두었던 사업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야 하지만 올해는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의원 320명 선출

각 지부별 대회가 끝나자, 이어 2014년 노동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 선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됐다. 각 후보자들은 준비한 출마의 변을 낭독하며 저마다 지지를 호소했다. 강북지방본부에 출마한 김재준 후보자는 “대의원의 임무는 집행부와 함께 노동조합을 강화시켜, 단결된 힘으로 회사와 맞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 지부의 실정을 잘 알며,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힘찬 단결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깨닫고 있으니 반드시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대구지방본부의 하중열 후보자 역시 “강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대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는 대의원이 되겠다”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각 후보자들의 출마 동기와 공약이 발표된 뒤 곧 이어 투표가 시작됐고, 그 결과 총 320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320 곳 중 경선은 22곳이었다. 전국대의원은 KT노동조합 규약 제25조에 의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신임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 발생 결의 등 13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320명의 대의원 당선자들은 ‘조합원들이 지지해 주신만큼, 현장의 요구가 현실화 되도록 지방본부와 중앙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지부에 부끄럽지 않은 대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M I N I I N T E R V I E W



제주본부지부
현성환 대의원

“현장과 중앙을 이어주는 대의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전국대의원대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 규정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과 예산 등을 결정하는 곳이 또 대의원대회이고요, 즉 대의원이 바로 서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그 영향은 조합원 여러분에게 미치게 될 수 밖에 없죠. 자주적인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대의원이 만들고 그 출발이 바로 지부대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이 노동조합의 힘이 되며 건강한 노동조합으로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대의원을 비롯하여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할 때 사측은 노동조합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생각을 실제 활동에서 실천하는 그런 대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정서를 잘 아는 대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서야 하는 자리가 어디이며 노동운동을 하자고 모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노동계의 한계 속에서 실현하지 못한 진정한 노동 운동을 동지들과 함께 확장하며, 이를 통해 대안의 길을 모색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운동은 조합원의 권익 강화와 함께 전체적인 노동자의 삶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열린 운동’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틀에 갇혀버린 노동운동이 아닌 자유로운 노동자의 세상을 열고자, 또한 평조합원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기 위해 대의원에 출마했습니다. 흔히 회사의 발전을 소수 경영진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경영이야말로 조직의 모든 구성원과 공동체를 위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노동운동을 위해 아래로부터 실천하는 다짐으로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더불어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KT노동조합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대의원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강원고성지부
박광호 대의원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연대 투쟁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할 것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재익 고용노동위원장

우리나라 장애인의 노동과 소득보장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자립생활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장애인 인권운동이 성장하면서 이동권, 교육권,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낮은 장애인고용률과 비정규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등 많은 문제들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소득보장과 노동권 문제는 심각하다. 1월 16일 여의도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증장애인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위한 자립생활 인턴제 시행과 근로지원인제도 확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이슈화시킨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김재익 고용노동위원장을 만나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찾아간 곳은 강남에 자리한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 한자연 고용노동위원장이자 굿잡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재익 소장은 이야기에 앞서 '장애'란 과연 무엇인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는 사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몸의 능력이 결여된 것은 장애가 아니라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를 입은 것은 손상이지만 장애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시민권 획득을 위해 사회 환경을 변화시켜 장애를 덜 느끼고 시민과 동등하게 생활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립생활(IL:Independent Living)'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장애를 만든다는 이 하나의 축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김소장의 설명이다.

“정부가 가족의 의존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결정권과 선택권, 동시에 자기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자립생활입니다. 센터는 대변자로서 권익옹호, 자립생활 기술훈련과 교육, 고용창출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자립생활 이념이 확산된 것은 2000년대로, 현재 전국에는 약200개의 IL센터가 있고 2005년 이 센터들의 연합체인 한자연이 출범했다. 김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정책은 “한마디로 빈곤한 정책”이라 잘라 말한다. 그럴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이행이 강제되지 못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늘 일회적인 생색내기로 그치는 상황. 더구나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는 턱없는 예산으로 지금까지도 시범사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약16%, 약40%의 경증장애인과 비교해도 2.5배가 차이난다. 이렇듯 노동 현장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정착을 위한 고용지원의 새로운 방안으로 한자연이 요구한 것이 바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인턴제'다.

“자립생활인턴제는 전국 200개 IL센터에 1년간 단기인턴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3명을 고용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립생활고용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2013년 10월부터 불과 3개월간 장애인시험고용 사업예산 일부를 활용, 42명의 중증장애인을 36개 자립생활센터에 월80만원씩 지급해 인턴으로 일하게 했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더 이상의 지원 없이 단순 시범사업으로 일단락 짓고 말았다.

김위원장은 왜 굳이 IL센터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국 200개 IL센터의 소장은 모두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인식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의지가 높습니다. 또 IL센터는 장애인 조직문화와 직무환경이 가장 잘 형성된 곳입니다.”

그는 1년에 신규고용인턴 3명에게 각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총 예산은 약86억 정도로 100억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인턴제 취업이 되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으로 인해 수급권을 박탈 당할까하는 두려움에 시도조차 어려워하는 현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원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이 박탈된다. 이에 김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이 고용된 후 수급권 탈락유예기간을 2~3년 정도로 연장하는 등의 고용유인전략이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혀 일할 수 없는 최종중증장애인 30%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을 주장했다. 기본급여 30만원과 추가급여 20만원을 책정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추가하면 월 100만원이 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경제적 자립토대가 마련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그는 이 모든 대안들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만 비로소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끝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KT 조합원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장애인들이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것, 우리사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KT노동조합의 가치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라는 것은 사회가 만든 것이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장애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만든 것은 사회입니다. 장애인도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또한 동지로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KT조합원들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류를 대신 읽어 주거나,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대신 이동시켜 주는 일 등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도와줌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동거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했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족, 외로운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인구도 급증한 것이다. 개나 고양이를 단순한 애완용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강해졌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반려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

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7.9% 359만 가구에서 5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인구를 감안할 때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 반려동물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개인적 만족이나 오락을 위해 동물을 기르기 시작했다면 최근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물질적 풍요를 얻은 반면 인간은 심리적 불안과 고독을 안고 살아간다. 사회 구성원들은 수많은 경쟁과 갈등 상황에 노출되면서 점차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 이 같은 만성적 불안과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서적 안정과 신뢰의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을 다하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은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상실되어 가는 인간본연의 성정을 되찾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은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해 준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의지하며 위안을 얻는 일이 바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다.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여된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리학을 바탕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애니멀 테라피(Animal Therapy)'의 효과다. 애니멀 테라피는 감정조절, 의욕회복, 통증완화 등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은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살며 돌보는 과정 등 자연스러운 감정 교류만으로도 자기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 또 동물을 매개로 타인과의 접촉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향상되기도 한다.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내면



[사진] U.S. Air Force photo

의 고독과 스트레스, 공격성이 사라지고 상대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커지기도 한다.

특히 치료전 분야의 연구 효과가 가장 활발하다. 개를 돌보고 함께 생활하며 신체적 접촉을 늘리는 것만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개와 친밀감을 형성하면 체내 엔도르핀 분비량이 늘어나 불안감이 사라지고 심장 박동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된다.

심신의 안정을 요하는 정신질환이나 노인성 질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 질환자의 증상 완화는 물론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과정에 이르기까지 치료전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불황 모르는 반려동물용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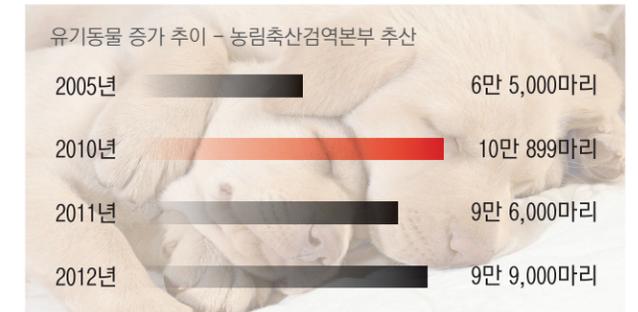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시장규모 또한 2010년 1조 원에서, 2012년 1조8천억 원대로 불과 2년 새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오는 2020년에는 6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웰빙·고가 바람을 타고 고급 애견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강아지 간식도 상어 연골과 연어, 한우 생간을 말린 수제품 등이 인기다. 동물병원도 매년 증가 추세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900 곳이었던 전국 동물병원 수는 2014년 현재 3600곳에 이르고 있다.

최근 동물병원은 의료 서비스 외에 애견용품 판매와 미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산업이 사료와 의료 부문에 국한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전용 호텔과 유치원, 장례식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람이 생로병사의 생애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서비스산업이 등장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우선



가족처럼 사랑받는 반려동물이 있는가하면 길거리로 내몰리는 동물들도 여전하다. 2000년 이후 반려동물 가구가 크게 늘면서 유기동물 수도 급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2년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주위에 버려지는 개와 고양이는 여전히 많다. 미아건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소유자의 책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반려동물등록의무제가 시행됐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시적 호기심이나 유행을 좇아 반려동물과의 동거를 시작했다는 모두에게 상처로 돌아오기 쉽다. 작은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를 데려와 기르다가 몸집이 커지거나 병이 들면 유지 관리와 병원비 부담 등으로 책임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 유기동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 역시 동물을 기르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무턱대고 '입양'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특히 유기된 동물의 경우 생존을 위협받는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만큼 각별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아울러 동물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반려 동물등록제 전국확대 시행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며, 중성화한 개에 대해서는 50%의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등록하면 인식표가 발급되며, 내장형은 2만원, 외장형은 1만5천원, 일반 인식표는 1만원의 비용이 든다.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 개

“최고의 S&R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대구고객본부 사내채널운영부 S&R팀 권화숙 조합원

투철한 마인드와 노력하는 자세는 세일즈 마케팅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다. 여기에 긍정적인 사고와 경험에 따른 지식이 뒷받침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인재상이라고 봐도 좋겠다. 특히 요즘처럼 신규 고객 획득이 힘든 통신업계 현실에서는 충성도 높은 우량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전략일 수밖에 없는데, 우수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책임자가 바로 권화숙 조합원이다.

고객가치 전담고객 3,000명을 케어하다

대구고객본부 수성지부 이익가치팀 소속의 권화숙 조합원은 현재 남구 봉덕동에 자리한 본부 S&R(Sales & Retention)팀으로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

리텐션 업무는 쉽게 말해 고객을 붙잡아 두는, 그러니까 우량 고객을 놓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녀는 현재 우수고객으로 분류된 고객가치 전담고객 3,000명을 케어하고 있다.

“매달 평균 300명의 고객들과 접촉해요. 홈폰 판매 업셀링, TV 판매 업셀링 등 본부의 방향에 따라 타겟 고객을 중심으로 운영하죠. 모바일, 집전화, 인터넷, TV, 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 kt를 오랜 기간 이용하며 매출이 가장 높은 VIP고객을 선정해서 고객들이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고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000명 전담고객의 100번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요구나 징후 시 해지방어, 타겟 캠페인을 통한 전담고객 업셀링(Up-Selling)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kt는 지난해 세일즈직을 신설해 200명을 공채 선발했다. 세일즈직은 유통영업과 리텐션 업무로 나뉜다. 유통영업은 전국 올레매장 판매 지원활동을 맡아 매장 직원의 판매 역량 강화와 유·무선 상품판매 코칭 및 지원을 담당하고, 리텐션은 인·아웃바운드 콜을 통한 고객케어활동과 유·무선 상품판매가 주요 업무다. 권화숙 조합원이 이 일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도 이때부터다.

이전까지 그녀는 kt cs에서 근무했다. 2000년 1월부터 kt cs에서 상담업무, 교육강사, SO부서와 CRG부서 팀장 등을 거쳐 이



자리까지 왔다.

대구본부에는 현재 권화숙 조합원을 비롯 경북권을 포함해 S&R 담당자 총 11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분위기가 좋다. 그녀는 세일즈 업무는 특성상 마음이 편해야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선배처럼 언니처럼 다독여주는 직속 상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그녀의 지원군이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지 않아요. 팀장님과 차장님은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예요. 저희 팀원들은 이분들이 만일 다른 지부로 간다면 서명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할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첫째

각 통신사들의 다양한 혜택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요즘은 가입자들의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리기 마련. 이런 때일수록 고객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한 우수한 세일즈 직군의 능력 발휘가 절실하다. 이전 직장에서부터 응대 노하우에 따른 판매 지식이 차곡차곡 쌓인 그녀의 현 업무 능력은 그 점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전담고객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꼭 권화숙 매니저에게 가입하라’며 그녀를 소개시키기도 한데, 노하우가 뭘까. 권조합원은 일단 고객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끝까지 경청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한다.

“저는 고객들에게 우리 kt를 오랜 기간 사용하신 우수고객임을



부각시키면서 감사 인사와 함께 제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임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 하시라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꼭 알려드려요. 그러면 주말에도 착신된 휴대폰으로 벨이 울리곤 하죠. 제 전담고객이 타사를 이용하던 주위분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땐 가족요금제 관련내용으로 한 시간을 넘게 통화한 분도 있었어요. 장시간동안 모든 문제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상담해드렸던 게 고마우셨는지 후일 저를 만나러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오셨더군요. 지금도 자주 연락이 온답니다.”

그녀의 이런 열정과 성과는 어쩌면 일종의 테크닉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객과의 교감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고객에게 대해 그녀는 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고객 입장에서 세일즈 관련 전화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전화선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전달하는 느낌을,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의 업무를 위한 훌륭한 전략적 무기임에 틀림없다. 마치 솔과 라의 음을 오가듯 경쾌하고 발랄한 목소리는 상냥하고 신뢰감 있게 느껴진다.

물론 방어를 시도조차 못한 채 시쳇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지해달라는 고객도 있다. 이럴 때는 천하의 권화숙 조합원도 할 말이 없다. 사실 해지 고객 대부분은 타사의 혜택 때문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다.



해지 방어보다는 업셀링 유도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보람된 일들로 더 많이 차있다.

“13년 동안 경산지역에서 kt를 써왔는데 해지하겠다는 고객이 있었어요. 광이 깔리지 않아 다운로드가 3메가 밖에 되지 않는다고 광이 되는 LG를 이용하겠다고요. 100번에 문의해 봐도 ‘그 지역은 광이 안 된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단호했죠. ‘kt가 광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요. 일단 경산지부 부장님께 확인한 결과 그 지역이 난공사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객께 당일개통을 당당히 약속드리고 정말 어려운 공사를 진행했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설치비 위약금도 감액해 드렸고요. 그 고객님은 병원을 운영해서 일반전화 6대에 전화요금만 매달 2~30만원, 게다가 13년간 결합상품도 없던 분이셨어요. 그 정도 혜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후 TV도 설치하셨고요. 해피콜을 했더니, 90메가로 다운로드 된다며 아주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평소 사람들과 대화하기 좋아하고 웬만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권조합원의 성격 또한 스스로를 S&R업무 최적화로 이끄는 데 한 몫 한다.

“늘 즐겁고 수다스럽게 얘기하는 저를 보고 동료들은 ‘고객에게 끼 부리지 마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죠. 아무래도 판매를 하려면

고객들의 어떤 물음에도 답변할 수 있는 상품지식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해도 쉽게 해당 파트로 넘겨버리지 않고 제 전담고객에게는 꼭 직접 알아보고 답변해 드려요.”

상품 판매에 있어 조금은 남다른 마인드는 동료들과도 이미 공유해 가고 있다. “리텐션 부서인 만큼 해지를 하겠다는 고객들에게는 업셀링해서 판매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TV 또는 휴대폰이 없다고 한다면 kt의 장점을 얘기한 후 ‘쓰는데 불편사항이 없다면 이런 좋은 상품이 있으니 저를 믿고 가입하시라’고 권하죠. TM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해지 고객을 업셀링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혜택으로 무조건 해지를 방어만 하기보다, kt에도 이득이 되고 따로 판매부서로 넘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죠.”

1등급 고객 위한 차별화된 혜택 필요

조금씩 긍정적인 성과가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S&R 업무의 더 나은 성과를 위해 그녀는 1등급 고객에 대해 일반고객과 차별화된 혜택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토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가 경험하고 느꼈던 S&R업무의 예로서황들이 개선된다면 분명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말한다.

“VIP고객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줬으면 해요. 하물며 CRG에서도 1년 연장하는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매달 5,000원을 할인 해주는데, 1등급 고객은 1~2개월 무료혜택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고객은 따로 리스트를 작성해 메모해 두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업무는 그분들에게 작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휴대폰 케이스 정도의 작은 고마움을 고객들에게 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S&R팀이 신설된 지 이제 1년, 권화숙 조합원의 바람은 단연 이 분야 최고가 되는 것이다.

“최고의 S&R 매니저가 되고 싶어요. 고객들이 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kt를 애용하고 kt를 주변에 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यो. S&R팀 모두가 파이팅해서 kt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kt와 함께하며 그녀와 소통하는 3000명의 고객들은 마음을 폭 놓아도 좋을 듯하다. ‘권화숙’ 고객들에게는 이 이름 석 자가 곧 kt라는 것을 그녀가 결코 잊지 않을 테니 말이다.

kt '황창규 호' 공식 출범

지난 1월 27일 kt는 임시 주주총회를 갖고 황창규 회장 내정자를 제 2대 kt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황창규 신임 회장은 2017년까지 앞으로 3년간 kt의 경영을 이끌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와 한동안 CEO 교체로 인한 경영상의 과도기를 겪었던 kt. 새로운 황창규 신임 회장이 이끄는 kt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 할 수 있을지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임 직후, 첫 인사 단행

황창규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곧바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현장 중심의 영업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지원조직 임원급 직책을 절반 이상으로 축소하는 한편 전체 임원수도 27% 줄이기로 했다. 대신 이들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해 영업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kt의 미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미래융합 전략실'을 신설하고 각 사업부문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는 조직 전반을 단순하고 수평적인 구조로 만들어 통신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장과 지원부서, 임원과 직원 간에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장성을 중시한 임원급 인사 단행과 kt 내부 경험이 풍부하고 직원들의 신망이 높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센 경영위기 파도 속, 리더십 첫 시험대에 올라

이처럼 취임 후 황창규 신임 회장은 고강도 인적 쇄신과 현장경영 중심으로 경영기조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잇따른 악재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쉽지 않음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kt는 4분기 3천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하락해 적자로 전환됐다. 부진한 실적이 경영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계절적 요인을 비롯한 감가상각분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실적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에 대한 고민은 깊기만 하다. 또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kt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Baa1로 한 단계 낮췄다. 이 외에도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이슈들 역시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더구나 무엇보다 전임 회장 교체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과 최근 자회사 직원의 불법대출 사기사건 등 일련의 일들로 인해 kt의 브랜드 이미지에 먹구름이 드리운 실정이다. 훼손된 브랜드 가치와 고객들의 인식을 되돌리는 것은 앞으로 특히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신임 회장에게 요구되는 과제와 기대

황창규 신임 회장 체제를 맞이한 kt는 잇따른 대형 악재들로 인해 취임 첫해부터 만만치 않은 시련을 겪고 있다. 하지만 kt가 직면한 일련의 사태는 신임 회장에게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어지는 경영 위기 속에 과거 문제점을 개선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황 회장이 제시한 첫번째 전략은 '품질 및 서비스 일등주의'다. 신임 회장은 선임되면서 글로벌 기업을 이끌어 본 경험과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행한 노하우를 kt 경영에 접목해서 대한민국의 통신 대표기업 '1등 kt'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수를 띄우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이다. 그가 삼성전자 사장 시절 반도체 1등 신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간을 '본원적 경쟁력'에 뒀던 만큼 통신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임 회장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우선 그동안 사업다각화를 통해 자칫 소홀했던 주력 업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황회장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과제 중 실적회복이나 기업 이미지 쇄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조직안정화이다. 치열한 통신시장의 특성 상 빠른 조직안정화는 신임회장의 능력을 가늠케 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찢겨진 조직문화와 떨어진 직원사기를 하루 빨리 치유해야 다른 과제도 탄력이 붙는다. kt가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세계 속의 글로벌 리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중심에 둔 따뜻한 경영으로 먼저 임직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 이루어야

최근 정윤모 KT노동조합 위원장은 황 신임 회장과의 만남에서 피폐한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빠른 시간 내 경영정상화를 이루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재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회장이 노동조합을 회사 경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황창규 회장이 과거 삼성전자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반도체 메모리 접적도가 1년에 두 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을 주장해 이른바 '황의 법칙(Hwang's law)'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업계 정설로 통했던 기존 무어의 법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이었지만 결국 '황의 법칙'은 현실이 됐다. 황창규 신임회장이 이끄는 글로벌 kt호는 현재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뤄내는 통신업계의 '제2의 황의 법칙'의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노동조합을 경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 한국노총 제25대 선거인대회

김동만 위원장
이병균 사무총장
새 집행부 출범



지난 1월 22일 한국노총은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제25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3년간 대한민국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을 주도해 갈 이번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기호 1번 김동만 후보, 사무총장으로 이병균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한국노총 임원선거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각 후보로 기호 1번 김동만-이병균 후보조, 기호 2번 김주익-박대수 후보조, 기호 3번 문진국-김주영 후보조 그리고 기호 4번 이인상-서재수 후보조 등 총 4팀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향후 임기동안 굵직한 노사정 현안은 물론 지방선거 등의 이슈가 얽혀있어 차기 한국노총 지도부 선거과정에 노사정의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기호 1번 김동만 위원장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자신이 한국노총의 당면한 문제와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조합원이 바라는 인간중심의 노조를 만들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함께 출마한 이병균 사무총장 후보는 정부와 자본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운동 진영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동의 힘을 모을 총연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2번 김주익 위원장 후보는 현장이 노총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규약과 약속을 지키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박대수 사무총장 후보와 함께 산별 지역조직을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노동운동의 신의를 지켜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기호 3번 문진국-김주영 후보조는 노동 탄압의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단결과 통합임을 강조하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어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강한 한국노총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밝히며 통합과 혁신의 힘으로 당당히 투쟁하는 100만 노동자의 희망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기호 4번 이인상-서재수 후보조는 한국노총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책임자임을 내세우며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고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결선투표까지 이어진 치열했던 선거인대회 과정

이번 임원선거는 한국노총 26개 소속 회원조합에서 확정된 재적선거인 2,704명의 선거인단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KT노동조합은 전체 선거인단 중 최다인원을 구성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 당일 까지도 당선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한국노총을
한국노총답게 만들겠다!
공공부문 대정부 투쟁도
양대노총의 경계를
허물고 중심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다”

을 기록했다. 재적선거인 중 2,560명이 투표에 참가한 1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동만-이병균 후보조가 755표, 기호 2번 김주익-박대수 후보조가 733표, 기호 3번 문진국-김주영 후보조가 923표, 기호 4번 이인상-서재수 후보조가 135표를 각각 받았으며 나머지 14표는 무효 및 기권표가 되었다.

전체 선거인단 중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조가 없어, 1위와 2위를 차지한 기호 3번, 기호 1번 후보조를 대상으로 곧바로 2차 결선투표가 진행되었다.

2,473명이 참가한 2차 결선 투표 결과, 기호 1번 1,349표, 기호 3번 1,087표, 무효 9표, 기권 28표로 기호 1번 김동만-이병균 후보조가 득표율 54.5%로 한국노총 임원선거관리규정 제43조 2항에 의거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사람 중심의 강력한 한국노총 만들겠다"

제25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기호 1번 김동만 당선자는 당선 인사를 통해 “한국노총을 한국노총답게 만들겠다”며 “공공부문 대정부 투쟁도 양대노총의 경계를 허물고 중심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아울러 “버스, 택시, 우정, 환경미화원 등 기름 냄새나는 공단현장까지 직접 돌며 한국노총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만 위원장 당선자는 1985년 한일은행노조에서 쟁의부장을 맡으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2000년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그해 금융노동자 총파업과 국민·주택은행 총파업을 주도했으며 2006년 금융노조 위원장이 됐다.

김동만 위원장 당선자와는 금속노련 위원장 시절부터 20여년 넘게 함께한 동지인 이병균 사무총장 당선자는 “역사적 순간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면서 “한국노총 변화의 큰 물결을 만들어 내겠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KT노동조합과 파트너십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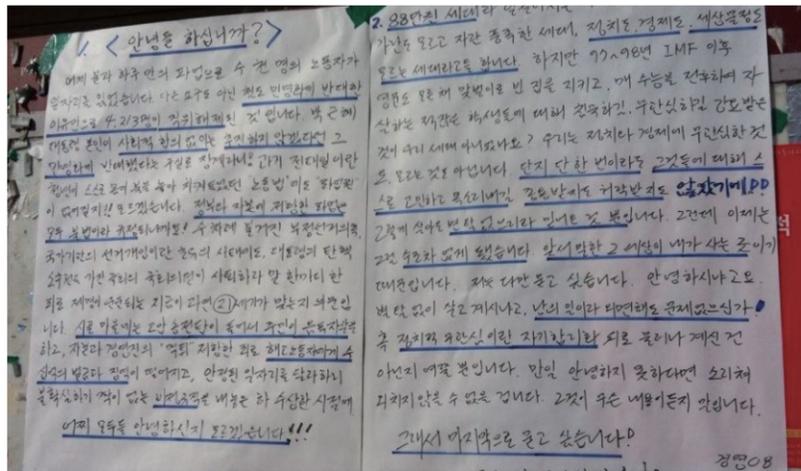
앞으로 한국노총 새 지도부가 풀어나가야 할 노동계의 이슈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것들이다. 최근 이어진 노동탄압으로 경색된 노정관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노사의 갈등과 더욱 심해진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 등 하나같이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들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새 지도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취약한 노동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발로 뛰는 노동정책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성원과 믿음이 가장 큰 에너지가 되어 여러 현안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4월 한국노총에 가입한 KT노동조합은 총 3만여 명의 거대 조합원을 이끌며 한국노총의 핵심노조를 이루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KT노동조합은 통신노조를 대표하며 한국노총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출범하는 한국노총 새 지도부가 KT노동조합과 함께 어떤 개혁과 통합의 파트너십을 이루어 나갈지 관심이 크다. 한국노총이 KT노동조합과 협력을 이루어 노동운동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ISSUE & SOCIETY

세상을 울린 일곱 글자의 물음표 “안녕들하십니까?”

서울 어느 캠퍼스에 붙은 대자보 몇 장. 시민들은 공공철도 민영화 반대를 계기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밀양 송전탑, 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에 대해 그동안 숨죽여왔던 자신의 생각을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응답해가기 시작했다. 대자보에 적힌 일곱 글자의 물음표는 단순한 정치적 반응이 아닌 소통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애달픈 목소리다.



시민 하나하나가 응답한 대자보 운동

지난해 12월 18일 고려대에 다니는 주현우 씨가 자신의 학교 게시판에 내건 대자보의 내용은 이렇다. 가볍게 “안녕들하십니까?”라는 가벼운 안부인사로 시작한 대자보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철도노동자를 해고한 것을 보면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 ‘파업권’이 없어질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자보에서는 시골마을에 강제로 들어설 고압 송전탑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주민의 비극을 알렸고,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진 희대의 아이러니를 이야기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또한 IMF를 거치는 동안 부모님들의 고단한 맞벌이를 지켜보며 수능시험 때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래 수험생 친구들을 침묵한 채 바라보기만을 강요당한 우리들 역시 88만원 세대나 다름없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온갖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한 채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합리화 뒤에 숨어 부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 대개의 언론은 서울 어느 대학에 붙은 대자보를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자보를 폰카메라로 찍어 SNS로 퍼 나르기 시작했고 어느 대학생이 던진 일곱 글자의 물음표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담겨 세상을 울리기 시작했다. ‘안녕들하십니까?’의 화답은 평범한 대자보에서부터 힙합, 어플리케이션, 차량용 스티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해가 지나가도 그 울림은 계속되고 있다.

꼬깃꼬깃 쓴 손글씨가 가슴을 울렸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이 확산되자 기성 언론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부는 대자보 열풍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권의 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자보 운동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반작용(?) 역할을 한 듯 보인다.

‘안녕하십니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SNS와 인터넷 매체를 바탕으로 엄청난 반향으로 나타났다. 처음 대자보가 내걸린 지 며칠 안되어 전국의 대학으로 퍼져나갔고 친일 역사교과서 문제로 시끄러운 일설 학교로 파급되어 ‘우리 역사는 안녕 못합니다’라는 고등학생들의 응답을 이끌기도 했다.

‘안녕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학생들은 물론 노동자, 주부, 취업준비생, 연구원 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공감을 얻으면서 급속한 확산을 맞았다. 여기에 우리나라 철도 노동자를 지지하기 위해 영국 노동자들의 메아리가 바다 건너 들려왔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을 심도 깊게 조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녕들하십니까?’가 이처럼 커다란 국민적 반향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일까.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디지털시대의 무기들은 하나같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일회용에 불과할 뿐 쉽게 파급될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명인들의 철없는 발언이 SNS를 들끓게 하지만 그 파급은 이슈를 넘어 반향을 넘나들기 힘든 것처럼 말이다.

이와 달리 아날로그한 대자보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정서적 호기심과 함께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옛것이라면 상품가치(?)가 있는 복고 전성시대에 손으로 꼬깃꼬깃 적어 놓은 대자보 글씨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 땅의 양심인 대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데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여기에 방법론도 한 몫을 한다. 정치선전이 주류를 이루던 기존 선전선동 방식에서 탈피, 응답 방식을 통해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상호소통의 진면모를 보여주며 파급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결국 한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향한 질문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정치, 노동, 페미니즘, 환경, 역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두를 건드리며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논쟁과 소통을 위한 질적 확산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국민들은 대화하고 싶다

그렇다면 군사독재 시대에서나 젊은 학생들의 피를 끓게 했던 대자보 운동이 다시 부활한 요즘, ‘안녕들하십니까?’의 파급은 어디까지일까. 대답은 두 가지다. 대학생이 대자보를 통해 세상에 던진 질문의 대답은 이제 모일 만큼 다모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에 화답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일곱 글자의 의미를 머리가 아닌 가슴속에서 곱씹었다. 대자보 운동의 확산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주제로부터 응답과 논쟁을 촉발시킨 소통의 화두는 이제 그 두 번째 양상이 전개될 듯 싶다. 한 대학생이 대자보를 통해 언급한 국정원 대선 개입, 밀양송전탑, 철도 민영화, 실업문제는 그 즉자적 사안의 확산을 넘어 이 시대의 근원적인 소통과 대화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혹자들 사이에선 겨울이 지나면 권력과 민중 사이에서 소통을 원하는 시민들의 외침이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안녕들하십니까?’가 문제제기의 작은 시작이었다면 그 2라운드는 어떤 형태로 확산될지 궁금해진다.





아련한 추억으로 충만한 복고 열풍,

90년대를 추억하라

‘응답하라1994’의 신촌하숙집 94학번 윤진은 서태지에 폭 빠져 살고, <건축학개론>의 승민과 서연은 PC통신으로 데이트 신청을 주고받는다. 콘서트를 알리는 플랜카드엔 소녀시대, 인피니트 대신 GOD와 조용필의 얼굴이 채워져 있고, 모퉁이 카페에서는 김광석의 목소리가 거리를 과거로 질게 물들인다.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 90년대 복고문화.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자꾸만 빨라지는데, 여전히 오래된 것들을 향해 있는 우리들의 욕망이란 대체 무엇 때문일까.

TV 속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한다

20세기가 귀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90년대는 이미 사람들 가슴속을 꿰차고 들어온 지 오래다. TV를 켜면 서울로 유학 온 촌뜨기들이 신촌의 어느 하숙집에 모여 아웅다웅 펼치는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열광했다. 케이블방송국의 한낱 저예산 드라마에 불과한 <응답하라 1994>는 지상파도 해내기 힘들다는 시청률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응사앳이’ 후유증을 곳곳에 뿌려놓았다. 그리고 자매품인 <응답하라 1997>과 지상파의 <미스코리아>가 TV 속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고, 영화 <건축학개론>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30~40대들의 가슴을 후벼놓았다. 어디 이뿐인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아티스트의 절규어린 목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아릿한 전율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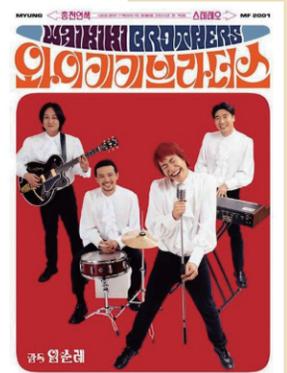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신기한 것은 이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비단 30~40대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90년대를 경험하지 못한 20대들이 이모, 삼촌뻘되는 30~40대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는 모습은 자연스런 풍경이 되었고, 아이돌 가수들이 90년대를 따라 부르는 리메이크 오마주 앨범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어엿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쯤 되면 90년대 복고문화를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향수로 치부하기에는 웬지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한때 과거가 좋았다고 추억하기보다 사람들은 현재의 ‘결핍’을 ‘추억’으로 채워가며 열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1세기가 괴로울 땐 20세기를 호출하라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세기말, 구체적으로 IMF 직후다. 당시 극심했던 경제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잘살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 언제나 그랬듯 시장의 대응은 재빨랐다. <내 마음의 풍금>, <박하사탕>, <춘향뎐> 등의 영화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쉼시봉으로 대표되는 ‘7080’ 가수들이 다시 TV에 등장해 현재 50대의 빈 가슴을 어루만져주었다.

그런 면에서 당시 7080 복고문화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90년대 복고문화와 비슷하다. 현재의 50대가 과거 70~80년대의 기억을 더듬으며 위안을 삼는 것과, 30~40대가 90년대의 노스탤지어를 통해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는 양상은 7080과 90년대 복고문화가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김광석의 노래와 이문세, 이승철의 공연에 그토록 열광하는 10~20대가 쉼시봉을 비롯해 양희은, 김민기, 해바라기를 대할 때는 반응이 신통치 않다. 그들은 “7080 음악이 무겁다”고 말한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 아래 이렇다 할 문화를 향유하지 못한 현재의 50대들은 다방에 옹기종기 모여 낭만을 노래했고, 암울한 시대를 부르짖으며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갔다. 지하 다방은 현재 50대들의 일종의 숨은 아지트였던 셈이다. 억압을 피해 어두컴컴한 아지트에 모여 부른 그들의 노래는 비록 훌륭했으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옥타브에 미치지 못한 듯하다.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전성기로 7080 문화





는 아쉽게도 시장의 지위를 내준다. 막강한 상품성을 지닌 90년대 복고문화에게 말이다.

다양함의 르네상스, 블록버스터를 탄생시키다

‘난 정말 그대, 그대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이런 슬픔 안겨주는 그대여.’ 메탈과 테크노 비트가 적절히 결합된 서태지 노래는 언제 들어도 흥분된다. 섹시보이 박진영의 음악은 산뜻할 뿐 아니라 비주얼과 연출 면에서 여전히 완성도가 뛰어나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흘러나오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은 어쿠스틱 특유의 섬세함과 절절함이 잘 묻어난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와 빈틈없는 완성도, 세련된 디지털과 섬세한 아날로그가 서로 대비되고 어우러져 화려한 콘텐츠를 꽃피운 것이 바로 90년대 대중음악이다.

그 흐름은 스크린에도 이어졌다. <투깝스>가 한국영화 최초로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예술영화가 지키고 있던 영화시장에 상업영화의 부흥을 몰고 온 것이다. 이어서 한국영화 최초의 ‘블록버스터’라는 수식을 갖춘 <쉬리>가 500만 관객을 몰고 오면서 소재를 가리지 않은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고 스크린 위에 올려졌다. 현재 최고의 연기자 반열에 올라 있는 송강호, 최민식을 비롯해 명작 제조기인 박찬욱, 봉준호 감독 그리고 예술영화 거장인 김기덕, 홍상수 감독은 90년대가 낳은 이 시대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방송가에서도 새바람이 불었다. <질투>를 통해 드라마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MBC 프로덕션은 세련된 영상미와 간결한 구성을 토대로 <걸어서 하늘까지>, <파일럿>, <사랑을 그대 품안에>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당대의 영상언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라이벌인 KBS도 배용준을 데뷔시키며 <사랑의 인사>와 <젊은이의 양자>로 귀공자 이미지를 선점했고, 풋풋한 신인 이병헌은 <내일은 사랑>과 <사랑의 향기>를 통해 캠퍼스 드라마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다. MBC가 파일럿, 농구, 호텔리어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소재를 열어갔다면 KBS는 인물과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90년대 드라마 르네상스를 이끌어간다.

21세기는 없다? 90년대의 연장선일 뿐

이제 시계를 제자리로 돌려볼까. TV에는 근육질 짐승들이 복근을 드러내고, 핫팬츠 차림의 베이글(10대 베이비 글래머)이 인터넷을 달군다. 뮤직비디오 한 편을 찍는데 영화 한편의 공력이 투입된다니 완성도 면에서도 대단하다. 장르가 다양해지는 것도 모자라 퓨전과 컨버전을 거듭한 새로운 장르가 태어나고 있ছে 있는데 불과 몇 달이면 충분하다. 노래도 빨라진데다 자칫 리듬을 놓치기라도 하면 무슨 의미인지 해독이 안될 때도 있다.

전자음으로 무장한 아이돌과 댄스음악이 생겨난 지 고작 10년 안쪽. 특이한 것은 한류열풍을 타고 아이돌문화가 정점으로 올라설수록 복고문화 역시 확장된다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의 노래에 세상은 예전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사람들을 위로해줄 문화가 오히려 피로를 일으켰으니 사람들은 그 반

작용으로 ‘과거의 행복’을 원했고 ‘70, 80, 90’을 호출했을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도래 역시 복고문화를 재촉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삶의 방식이 모아지는 시대, 세상은 빨라지고 편해졌으나 디지털에 대한 거부반응은 여전히 남아있다. 너무 빨라 적응하기 힘들어 할 것을 일찌감치 우려했을까. 90년대 어느 이동통신사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며 소비자들을 위로하는 선견지명을 발휘했다. 초코파이에 새겨진 ‘정(情)’, ‘효(孝)’는 숨 막히는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사전 마케팅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 유행하는 90년대 복고문화의 정체는 무엇일까. 혹자는 지금을 복고가 아닌 90년대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90년대 당시엔 광범위한 문화영역에서 온갖 새로운 것이 창조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0년 전에 나온 힙합, 레게, 테크노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1세기가 어떤 새로움을 시도하려해도 이미 90년대에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좀더 빨라진 속도일 뿐이라는 것. 하기가 90년대 중심에 섰던 이병헌, 이정재, 배용준, 정우성과 더불어 서태지의 혁명적 유산은 40대를 훌쩍 넘긴 지금에도 ‘오빠’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으니 충분히 수궁할 얘기다.

통기타를 맨 아이유, 90년대와 타협하다

이쯤에서 복고란 시대를 돌고 돌아 언젠가 마주하게 될 필연적 반복일 듯싶다. 하지만 걱정이 남는다. 30~40대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90년대 문화처럼 지금의 20대가 시간이 흐른 후 재회할 문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90년대가 21세기에 창조될 문화를 모두 선점한 마당에 20년 후 그들이 느낄 복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복고란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의 아련한 추억이자 향수다. 그래서 느리고 오래 간다. 하지만 아이들이 뿜어내는 격정적인 몸짓은 안정제이기보다 흥분제에 가깝다고 혹자는 말한다. 우리가 느끼는 복고문화는 30~40대들에게는 축복이지만 10~20대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무한경쟁이 낳은 불안과 고통, 디지털이 야기한 급격한 삶의 변화 그리고 심화되는 세대갈등 속에 ‘90년대’를 정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즐길 수는 있다. 아이돌 가수 아이유가 통기타를 메고 김광석을 부르는 모습을 앞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역할은 ‘타협’이고, 복고의 기능은 ‘편안함’이니까.



情·孝



90년대를 추억하라

미세먼지, 누구냐 넌?

중국발 미세먼지 완전 정복 가이드

봄철 황사로 대표되는 중국발 오염물질이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을 한국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처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중국발 미세먼지의 정체는?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70 μ m 이하인 총먼지(TSP)와 지름 10 μ m 이하인 미세먼지(PM-10), 지름 2.5 μ m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그중 10 μ m 이하의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중국에서 날아온 2차 생성물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라 이름 붙었다. 미세먼지는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데 주로 난방, 자동차, 공장, 정유시설 등의 배출가스를 통해 발생한다. 입자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가 낫, 카드뮴 등 중금속과 결합해 체내 유입되면서 그 위험성이 커진다.

미세먼지 왜 위험한가?

일단 몸에 들어온 미세 먼지는 세포벽을 뚫고 혈액 속으로 침투한 뒤 몸속을 순환하며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입자가 큰 먼지와 달리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폐포 깊숙이 침투한 초미세먼지는 기관지와 폐에 쌓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트린다.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 심장 질환에도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에는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호흡기를 통해 몸으로 들어온 먼지는 가장 먼저 코털에서 걸러지고 그다음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지는데, 미세먼지는 이 두 차레의 정화 과정으로

도 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또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키고 모공을 막아 각종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94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도노라에서 20명이 사망한 대기오염사고, 1952년 4,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런던 스모그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 이후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10 μ m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가 어린이와 노약자의 질병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세먼지를 피하는 법

무엇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통합대기환경지수(CAI)가 150이상이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μ g/ m^3 이상인 경우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도 모두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흡입되는 미세먼지는 활동의 강도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은 과격한 실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황사 마스크를 써야 한다. 황사 마스크는 지름 0.04~1.0 μ m 먼지를 80% 이상 제거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특히 입과 코는 물로 자주 헹궈주는 것이 좋다. 또 물을 자주 마셔 수분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이 마르지 않아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지방이 미세먼지를 씻어 준다는 속설이 있으나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지용성 유해물질의 체내 흡수를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시계가 뿌연 날은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하자.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일기예보와 함께 예보하고 있다. 환경부 전국대기환경정보,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2. 도로 주변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한다.
3. 야외 활동 시에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코와 손을 깨끗이 씻는다.
4. 모직의류나 머플러 등은 미세먼지가 들러붙기 쉽고 코와 입에 직접 닿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한다.
5.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꼭 닫아야 한다. 에어필터나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6.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촛불을 켜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내용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매우 나쁨	위험
(미세먼지농도 : μ g/ m^3 로/일)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600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좋음 보통	• 외출 등 실외활동 지장없음	
민감군 영향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	
나쁨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노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자제 • 차량운행 자제/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매우 나쁨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자제	• 노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자제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차량운행 자제/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위험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금지	• 노인/어린이 옥외활동 금지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차량운행 자제/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중지

Voices of Readers

고객의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마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kgb@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호남고객센터 기업SO상담팀 조미경
우리센터 지부장님이 잊지 않고 마음의 통하는 '길'을 사무실이나 휴게실에 비치해 놓아 항상 읽을 수 있습니다. KTTU NEWS도 있고 주요 발자취나 노동계 이슈 등을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감에서 공존으로> 기사 또한 마음에 와닿구요. 마음이 통하는 2014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내복지제도' 정리 한번 기획기사 해주심 어떤지요?

IMO운송센터 솔루션개발팀 정원환
1년 동안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해 추진한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잘된 것도 많지만 미진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도 조합원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네트워킹운송단 집중운송센터 IP팀 신병구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정말 쓴 살 같이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년연장법 통과에서 최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까지 키워드로 되돌아 보는 2013 노동계 이슈편이 한 눈에 잘 정리되어 인상 깊었고 연말연시라 그런지 특히 말미에 한 잔의 술에 담긴 노동과 소통, 절제와 풍류를 아는 우리의 맛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전남고객본부 광주지사 이상도
'키워드로 되돌아보는 2013 노동계 이슈' 새정부 출범이후에 노동계는 다음과 이슈로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해결되고 또 무산되었다. 1.60세 정년연장의 정년연장법 국회통과 2.근로시간단축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무산 3.비정규직 해법은 과연 무엇인가? 4.통상임금의 새기준은 논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와 같은 네가지 과제가 아직도 속제로 남아있는게 현실이지만, 2014에는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아픔을 언제쯤이나 잠재워 줄런지 안타깝지만 하네요.

군산지사 고재영
오늘 노동조합 소식지 '길'을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어 보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또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등등 다시 한번 깨달는 시간

이 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강남코어망제어팀 김진도
KTTU NEWS 와 더불어, 현장상황 노동자로서 필요한 주요 소식, 현 KT가 겪는 어려움과 강점을 골고루 아울러서 많은 한편에 담아주시고, 더불어 문화적 토막상식까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방지사 김경희
업무에 집중하고 시간에 맞추어 살다 보면 책을 보기 힘들고 그림 또한 보긴 더더욱 힘들죠. '사랑하라 솔직하고 단순하게'의 에세이 넘 좋았습니다. 두 페이지에서 읽는 정서적 내용은 잊혀져 갔던 나를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문득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지만 가야 하는, 혹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묻고 싶어지더군요. 앞으로도 좋은 글들 많이 부탁 드립니다.

향사업지원센터 선로팀 박종욱
한 잔의 술잔에 담긴 멋이라는 기사,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많은 자리에 한잔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맛을 알게 되어 술자리 마다 유익한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용전지부 유종선
조합활동 하는 전반적인 활동 내역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말 연시를 기해서 술 속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맛을 소식지를 통하여 느껴지며 올 한해 몇 일 동안이라도 절제의 음주문화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항상 중앙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릉지사 Mass고객2팀 최재덕
사랑하라~라는 에세이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조합소식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사도 종종 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운플랜 서비스 안내

(주)다운플랜은 조합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운플랜 주요 서비스

- 장례 서비스**
 - 약정금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과 정성이 담긴 장례행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근조화환, 장제용품, 근조기는 제공되니, 상 발생시 꼭 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웨딩 서비스**
 - 신랑,신부 두 분만의 한번뿐인 소중한 첫 출발을 품위로서 토털웨딩 행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근조화환 배송 서비스**
 - 상 발생시 장례식장으로 근조화환을 배송하여 드립니다.
- 축하화환 배송 서비스**
 - 웨딩시 웨딩 행사장으로 축하화환을 배송하여 드립니다.
- 근조기 배송 서비스**
 - 상 발생시 장례식장으로 근조기를 배송하여 드립니다.
 - 장례행사 종료후 꼭 근조기는 장례식장에 맡겨 주세요.
- 장제용품 배송 서비스**
 - 상 발생시 장례식장으로 장제용품을 배송하여 드립니다.
 - 지급되는 장제용품(400인분) 부족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100인용: 35,000원, 200인용: 70,000원, 300인용: 105,000원, 400인용: 140,000원)
 - 처음 장제용품 배송시 추가 주문하면 배송비가 없지만, 나중에 주문하면 수량에 관계없이 배송비 30,000원이 추가 됩니다.

콜센터(1577-1555) 번호 안내

- 콜센터 전화후 ①번**
장례서비스, 근조화환배송서비스, 축하화환배송서비스, 근조기배송서비스, 장제용품배송 서비스 신청 또는 문의.
- 콜센터 전화후 ②번**
웨딩서비스 신청 및 문의.
- 콜센터 전화후 ③번**
회원 가입 및 해지 등 회원관련 일반문의.

※ 상호부조에 대한 사항 및 경조사비 신청에 대한 사항은 복지 담당자(031-727-4037)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KTTU QUIZ

KT노동조합은 창립 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 힘찬 전진! 선진 노동조합 건설!"을 선포했다. '00주년'에 들어갈 말은? (힌트: 8페이지 참고)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